

## 에이즈와 결핵

국립보건원 자료에 의하면, 1999년 9월말 현재 확인된 우리 나라의 HIV 총 감염자수는 1,014명(여자 1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1월부터 9월말까지 138명의 HIV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27명의 감염자가 환자로 전환되었고 33명이 사망하였다. 최근 감염자 증가율이 높아진 것은 과거에 비해 개인건강관리차원의 자진 검사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HIV감염자의 발견이 증가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에이즈란?

AIDS는 후천성 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의 약자이며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진행성 증후군이다. HIV에 감염된 사람이 AIDS환자로 진행되기까지 이 바이러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 HIV는 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AIDS 환자들을 보면 몇 년 내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사망원인은 단순히 HIV에 감염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HIV가 인체에 침투하여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감염으로 진행시켜 약해진 면역기능이 이를 막아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HIV는 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서 수혈이나 성적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게 감염된다. HIV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며, 결국에는 AIDS로 진행하게 된다. HIV에 감염된 사람들은 혈액·정액·질 분비물·모유 같은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다.

최초에 인류에게 HIV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단지 아프리카 침팬지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HIV에 감염된 사람은, 감염 후 몇 주 안에 독감이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게 되며 이러한 증상은 일주일 정도 유지된다. 이후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열이 나거나 임파선이 붓고, 피로감을 느끼거나, 밤마다 땀에 흠뻑 젖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 에이즈 환자 생존기간 2년 정도

HIV에 감염된지 10년 이내에 감염자의 절반 정도가 AIDS환자로 진행된다. HIV에 감염된 사람이 AIDS 증상을 보이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AIDS의 '잠복기간'이라고 한다. AIDS로 진단을 받고 훌륭한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의 생존기간은 2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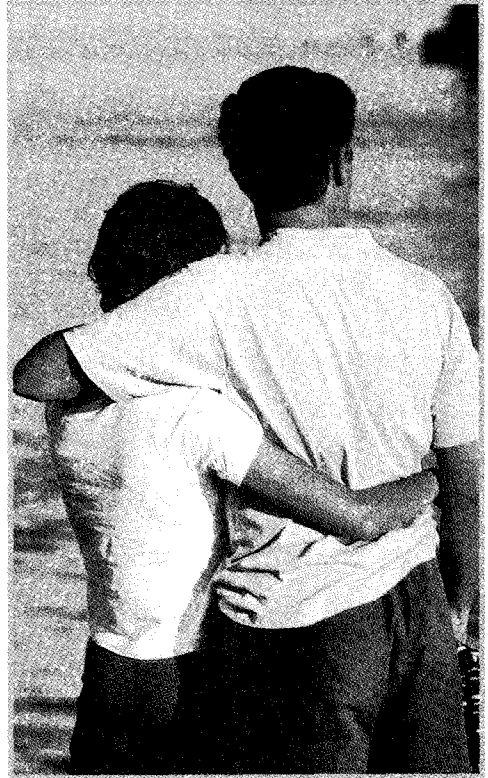
### HIV 감염 검사

HIV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아 보아야 한다. 혈액검사는 HIV에 대한 항체가 인체에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만일 혈액 내에 이 항체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혈액검사가 현재 바이러스를 발견하기 위한 주된 검사방법이다.

HIV에 감염된 후 현재의 검사방법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에이즈 전염 경로

1985년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혈액이나 혈액을 구성하는 일부 물질 등의 수혈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와같은 경로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일상적인 우연한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



지 않으며, 물이나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여성이 성관계를 통해 남성을 감염시키는 경우보다 감염된 남성이 성관계를 통해 여성을 감염시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 에이즈 예방 방법

\*부득이한 성접촉을 할 때

성관계로 인한 HIV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콘돔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대

방이 HIV에 감염되었는지 걸로 보아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대상과는 성접촉을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콘돔은 HIV나 다른 병원균이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콘돔 사용이 HIV 감염을 막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은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여성용 콘돔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만일 체액에서 혈액이 보이면, 청소할 때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옆질러진 것을 청소하거나 잘라낼 때 가능하면 비닐 또는 플라스틱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그 주변에는 염소표백제 1/4컵과 물 한 사발을 혼합한 용액을 도포하여 완전히 소독해 주어야 한다. 이 작업을 마치면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 감염된 체액을 다룰 때

의료계 종사자들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정액, 질 분비물, 혈액 등), 조직세포 등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언제나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계 종사자들이 감염된 체액과 접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이 예방책을 지켜야 한다. 즉 감염의 소지가 있는 체액에 피부나 점막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무장갑, 고글, 가운과 같은 예방적인 준비물들을 갖추어야 한다.

#### \*궁금증

에이즈에 감염되었음을 나타내는 첫 증상은?

에이즈에 감염되면 수주 후에 독감과 비슷한 증상, 다시 말해서 열이 나고, 목이 아프고, 전신이 쭈시고, 나른해지면서 일부에서는 임파선이 붓게 되는데, 이러한 증상은 대개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6주 후에 저절로 낫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증세는 모든 감염자에게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약 30~50%의 감염자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판정하는 지침으로 삼기는 어렵다.

감염이 의심될 때 즉시 검사를 하면 알 수 있나?

에이즈에 감염되어 항체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이기까지는 6주라는 기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감염후 적어도 6주가 지나야 양성반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염자에서는 6주 후부터 항체형성을 보이기 시작하여 대부분 3개월까지는 항체양성을 보이며, 극히 드문 예에서는 수년이 지난 후에 항체양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6주 후, 3개월 후, 6개월 후에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원한다면, 1년 후에 검사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감염자의 성접촉을 한 번 가졌을 때 전염

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자와 한번 성접촉을 가졌을 때 전염될 확률은 0.1~1% 정도다.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남자의 경우보다 전염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만약 폭력에 의해서 성접촉을 갖게 된 경우에는 전염율이 1%까지도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남녀의 전염율의 차이는 아마도 해부학적인 구조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마약중독자가 주사기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전염율 확률은 0.5~1.0%이다. 그리고 감염된 임신부가 출산시 신생아가 감염될 확률은 15~25%이며, 병원에서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감염될 확률은 거의 100%다.

키스나 피부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되나?

감염자의 모든 체액에는 에이즈바이러스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의 모든 체액이 전염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서 감염자의 혈액, 정액, 질액, 침, 눈물, 땀, 모유, 뇌척수액 등에서 모두 에이즈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 혈액, 정액, 질액, 모유, 뇌척수액만이 전염을 시킬 만한 충분한 양의 에이즈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와 에이즈 환자의 차이는 무엇인지?

에이즈 감염자란 몸속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상태이다. 가끔 에이즈 보균자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용어라 할 수 없다. 그에 반해서 에이즈 환자는 감염후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2차적인 감염증이나 악성종양이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에이즈 환자에서는 정상인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곰팡이, 바이러스, 원충, 기생충 등에 의해 폐렴, 뇌염, 장염, 망막염 등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결핵, 특히 치료약제에 내성을 보이는 결핵이 잘 발생한다.

에이즈 감염자로 판명되면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건당국에서는 감염자로 밝혀지면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그 후에는 관찰보건소를 통해서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진만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감염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치료기관을 소개해 주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에이즈치료제인 에이지티(AZT)를 지정치료기관을 통해서 무상으로 공급해주고 있으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비도 보조해 주고 있다. †